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Contents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공유

06 서울특별시 성북구 | 주민 대상 멀티미디어 공간, 장비 대여, 교육지원 사업(비대면지원)
10 경기도 부천시 | 「스마트시티 챌린지」 편리한 이동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스마트)
13 대구광역시 | ICT, IoT 기술기반 '스마트 공유공간' 조성 사업(스마트공간)
17 경기도 부천시 | 부천행복카(차량공유),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운영(교통)

청년을 지원하는 공유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젊음아 모여라! 청년 공유공간 조성(청년)
29 부산광역시 | 청년 취업정장 대여 서비스 '드림옷장'(청년)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유

34 경상남도 의령군 | '농기계 임대', '더 쉽고 빠르게' 농기계 임대 사업 공유누리 전환(농촌)
37 전라북도 부안군 | 농촌지역 특성 고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농촌)
40 충청남도 서산시 | 도농복합도시 공유지원 지속 발굴 확대(도농)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유

44 충청남도 서산시 | 공유누리 대표 인기자원 '서산시민센터'(교육강좌)
47 부산광역시 북구 |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일상)
51 경상남도 의령군 | 나대지의 재탄생, '나눔주차장' 공유 서비스(주차)
54 광주광역시 남구 | '나눠쓰면 아끼고 커지는' 지역물품공유센터 조성사업(물품공유)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시도의 공유

58 경기도 |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광역역할)
62 부산광역시 |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주차)
66 대구광역시 |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발굴 및 지원(공간)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



I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공유

주민 대상 멀티미디어 공간, 장비 대여 및 교육지원 사업

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역미디어 지원센터의 공간·장비 공유사업이 SNS 유튜브 시대에 주민주도형 미디어 콘텐츠 활동을 촉진하다

- 주민 대상의 영상촬영, 편집, 제작설비 대여 및 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디어센터 공간 대관, 장비 공유 증가세 뚜렷
- 시민 미디어 확대를 위한 영상동아리 지원, 라이브중계단 운영

주민 크리에이터를 위한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출발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와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급성장 추세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통에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1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5%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영상을 시청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즐기는 시대가 됐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영상을 촬영해서 이를 편집하고 중계하는 일의 대부분은 영상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적절한 장비와 공간만 준비된다면 누구나가 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는 2015년 설립 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마을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면들이 마을 고유의 콘텐츠가 되도록 지원해왔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 미디어활동에 필요한 것이 다 있네?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 행사나 주민자치 활동,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영상에 담고 싶어도 고가의 촬영장비나 편집설비를 구매하거나 유료로 대여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북구 아리랑로에 위치한 성북마을 미디어센터는 공개방송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교육실, 영상편집실, 동아리실, 녹음실 등을 갖춘 복합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센터 시설과 방송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 지역의 남녀노소 반응이 매우 뜨겁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전경)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조정실)


촬영 방송장비 및 대여물품

성북구 관내의 각종 기관과 단체, 주민활동가그룹 등은 지역의 미디어 자원을 활용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 유튜브 생중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공공예술 아카이브영상 제작으로까지 그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미디어자원 공유에서 비롯된 주민자치활동 성과



라이브 중계단 지원(정릉3동 주민총회)

2021년 기준으로 센터의 방송 공간·시설 대관은 235건, 장비 공유는 148건으로 이용실적은 주민들의 큰 관심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센터의 미디어 공간과 시설공유가 활발해진 데에는 성북구 라이브중계단의 역할이 컸다. 성북구 라이브중계단은 센터의 장비와 설비, 공간을 활용해 제작한 마을콘텐츠를 성북마을TV를 통해 수시로 송출하고 중계하는 구민 중심의 미디어 활동가그룹이다.

2021년 중반, 성북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에서 대여해 직접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과 주민 제안 의제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로 송출한 바 있다.

라이브중계단에서 활동 중인 돈암2동 주민자치위원인 김○○(56세)님은 "준비된 시설과 주민들이 있어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모두 비대면 영상회의에 참여했으며, 특히 평소에 온라인 활동에 익숙치 않았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힘주어 말한다.

센터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통해 이미 미디어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실력이 발휘되어 더 큰 성과로 나타났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센터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2021년 한 해에 영상 142편, 라디오 190편의 콘텐츠가 제작되었고, 성북마을TV를 통해 송출·중계된 콘텐츠는 무려 336건에 달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미디어 콘텐츠들은 주민 스스로 만든 창작물인 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최근 1년여의 콘텐츠 조회 수는 총 8만 건에 육박했다.



장비대여 관련 교육



성북마을TV 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마을미디어 제작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로 나아가다

올해로 설립 8년 차에 접어든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센터는 향후 적극적인 자원공유를 위해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편안한,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미디어 삼편(三便)정책을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구민 개개인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미디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활동에 집중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양질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제공' 이라는 센터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편리한 이동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

02

경기도 부천시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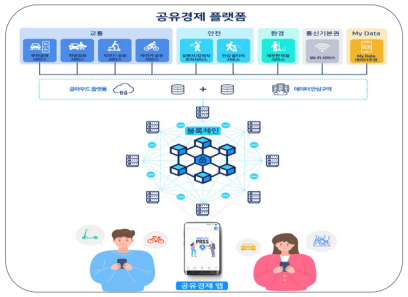


스마트도시의 생활문화 혁신과 편의를 위한
똑똑한 스마트 시티패스 플랫폼(앱) 운영

- 환경·안전·통신을 포함하는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스마트 시티패스' 앱 운영
- 부천 시민의 편리한 이동생활을 지원하고 대중교통과 공유 교통수단 간 통합 검색·환승·결제·교통비 할인 혜택 제공
- 불법 쓰레기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서비스 오픈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축

부천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어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솔루션의 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인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구축했다.



공유플랫폼 구상도

하나의 플랫폼(앱)에서 교통비 할인 제공(마일리지 적립) 및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 간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서 개인교통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편리한 교통서비스, '스마트 시티패스'에서 찾다


오프라인 행사 현장

2021년 7월 30일, 부천시는 하나의 앱에서 대중교통과 공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최적의 경로 안내 및 통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각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개발했다.

시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한 교통비 지원정책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우선 연계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제도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에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수단이 기존 도보·자전거에서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공유차·주차공유까지 확대되며, 대중교통요금 할인도 30%에서 최대 70%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승용차·대중교통·보행 수단만을 기반으로 하던 경로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공유교통수단(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차)을 반영한 최적의 경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은 2022년 1월 현재, 누적 11,000명 이상이 가입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시티패스 앱 가입자 1만 명 달성 기념 및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에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티패스 앱 가입과 이용을 도모하였고, 2021년 경인히트상품 스마트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새로운 공유의 길을 여는 공유경제플랫폼



시티패스 앱 환경서비스

부천시는 대중교통과 공유교통수단 간 통합 검색·환승·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하나의 앱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1년 10월 1일 시범으로 오픈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에서도 서비스 운영지역과 와이파이 접속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불법쓰레기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만들기 서비스(환경분야)를 2021년 12월 3일 오픈했다. 수집된 쓰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한 지점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불법쓰레기 문제해결을 지원하고자 한다.

향후 시티패스는 시민의 데이터 주권 회복 등 시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인원(All-in-One)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ICT, IoT 기술기반 '스마트 공유공간' 조성 사업



변화하는 시민 공간 활용 트렌드에 발맞춰
ICT, IoT 기술기반의 스마트 공간대여/ 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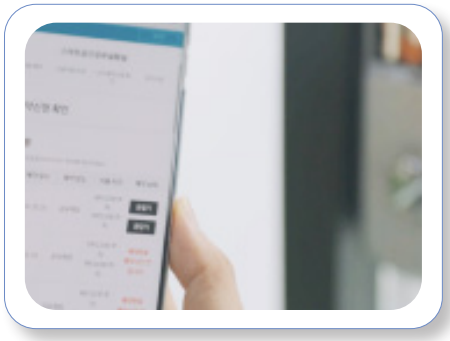
- 공공 혹은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공유공간 개방
- 공간대여 시 인력 및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적용
- '공유대구' 사이트를 통한 편리한 인터넷 공간예약시스템 구축

시민활동 다양화로 공간공유 시간과 범위의 확대 필요

최근 시민들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세미나실 등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공공시설과 공유공간 이용을 장려해 왔으나, 평일 야간이나 주말처럼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시설과 공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공간 활용 욕구에 부응하고, 공공자원 개방공유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간관리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기존의 사전 예약제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한편, 공간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했다.

ICT, IoT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 운영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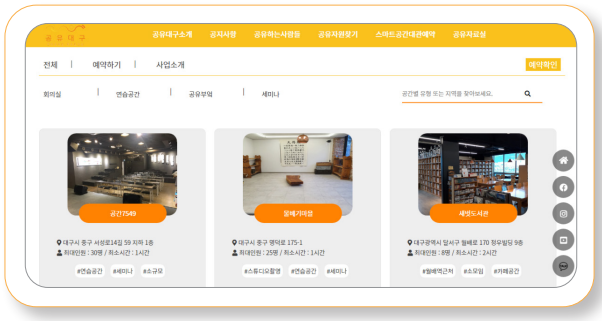


대구시는 2019년 3월부터 (사)대구시민재단 공유대구팀과 함께 지역 유휴자원의 공유공간 전환과 효율적인 공간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실행요소 발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여러 사용주체들의 균형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공간 시설물의 안전과 편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대구형 공유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시내의 여러 공유공간을 동시에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합 스마트기술 도입에 관한 세부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어락 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공유공간에 적용한 스마트 공간공유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공유공간 이용자는 공간 출입 시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출입문의 도어락을 쉽게 여닫을 수 있어 공유공간 운영자와 사용자그룹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 스마트 공간공유 실험은 운영자가 공간의 출입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공간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과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 의미있는 실험이었다.

'공유대구' 플랫폼을 활용한 공간관리 시스템 개발



대구시는 스마트폰 도어락 개폐 실험에 이어 2020년 2월부터 실내등, 냉난방 기기의 전원제어시스템, 예약한 시간에만 투명하게 거울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필름 거울, 예약시간 만료 후 공유공간 내 남은 인원을 점검하는 동작감지 센서, 공간 내외부의 보안CCTV 운영기술 등을 적용한 비상주 무인 관리시스템을 관내 공유공간에 적용해 나갔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대구' 누리집에 스마트 공유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공유공간을 예약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예약한 이용시간에 한하여 공간설비 제어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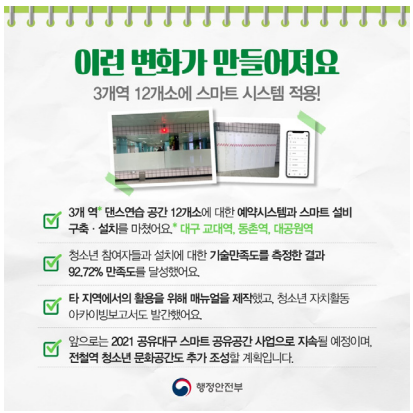
스마트 기술의 접목, 공유자원 개방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대구시는 2020년에 ICT, IoT 기반 스마트 공간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공유공간 5개소를 조성했고, 2021년에도 5개소를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웹 기반 예약시스템을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였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맞춤형 스마트 공유공간의 정착을 위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힘쓰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공간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유공간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행복카(차량공유),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운영

04

경기도 부천시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공유교통과 친환경 건강 교통수단 이용을 늘리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속**

- '공유교통' 정책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 '부천행복카' 사업 추진
- 건강레저 활성화와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 대여 서비스 진행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스마트도시 부천을 위한 지역자원 공유서비스 발굴, 확대

시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교통' 필요성

부천시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결에 대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의 물리적인 개선방안은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낮은 개선효과로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의 변화가 필요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1호선, 7호선)역 주변과 굴포천을 중심으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레저인구가 크게 늘어, 혼잡에 따른 대안으로 건강한 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올바른 공유문화 조성 및 공유교통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위한 차량공유·자전거 대여 서비스



부천시 공영주차장 내 부천행복카 공유차전용주차면

이에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협력·지원을 받아 추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부천행복카' 사업과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운영을 계획했다.

먼저, '부천행복카'는 편리하게 공유차량을 대여·반납이 가능하게 하여 공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른 공유차서비스 대비 평균 20%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부천시의 생활밀착형 차량공유서비스다.

'부천행복카'는 연계이동형, 행복나눔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계이동형' 서비스는 단시간, 단거리 통행 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차량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의 역할을 하며, '행복나눔형' 서비스는 이용자의 차량이용 패턴에 맞춰 평일형 또는 주말형으로 이용일정을 선택한 후, 선택한 일정에는 공유차를 내차처럼 이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주변 이웃들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1호선, 7호선)역과 자전거 레저 활동이 많은 굴포천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무료 임대, 간단한 경정비 등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소(판타지아 바이크스테이션)를 운영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전거타기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총 6명의 공무직이 각 대여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굴포천대여소는 주말 운영으로 1명씩 윤번제로 근무지원을 하고 있다. 1일 5시간 이내 대여하는 1일 대여방식과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해 주는 장기대여 방식이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정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차량공유, 자전거 무료이용으로 더 커지는 공유의 가치

이러한 차량공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차전용주차면'을 구획하고, 공유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일정한 수준까지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유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이동형 부천행복카는 노외공영주차장 15개소 내 50개의 공유차전용주차면에서 만날 수 있다. 시는 이용자가 공유차 예약 후 배정된 차량의 위치와 반납 시 주차가능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주차장 진출입부 부근에 공유차전용주차면을 확보했다.

나눔형서비스는 이용자의 집 근처에 공유차량을 제공하여 주이용자가 이용하고, 이용시간 외 공유기간 동안은 전용주차면 인근 이웃(또는 해당 지역 방문자)이 근거리에서 연계형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천행복카(차량공유) 나눔형 서비스 유형

현재 부천행복카 나눔형서비스는 오는 3월 개시 예정인 본 서비스의 연착륙을 위해 현재 체험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대상 지역에 '공유차전용주차면'을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패스'에서는 부천시민의 편리한 이동생활을 돕고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공유차,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전동킥보드)간 통합 환승을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천 자전거대여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1호선, 7호선)역, 굴포천, 부천시청 등 총 7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소에서는 자전거와 헬멧 대여뿐 아니라, 자전거의 공기압, 브레이크 점검 및 수리를 포함한 경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출·퇴근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절감(방치 자전거 활용),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공유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민 확대를 위해

부천행복카의 연계이동형 서비스는 2021년 7월 30일 개시 후, 5개월 만에 1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5개월간 월평균 247시간의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등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만 공유차가 배차되어 시민들의 접근에 한계가 있어, 실제 운영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서비스 지점을 운영하고 수혜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나눔형 서비스는 체험단 운영 종료 후, 공유주체가 될 주이용자의 확보를 위해 서비스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행복나눔형 공유차의 확산에 따라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거주지밀집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는 지속적인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여소 운영기간을 3월~12월에서 연중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말만 운영하던 굴포천 대여소를 주중에도 운영하면서 경정비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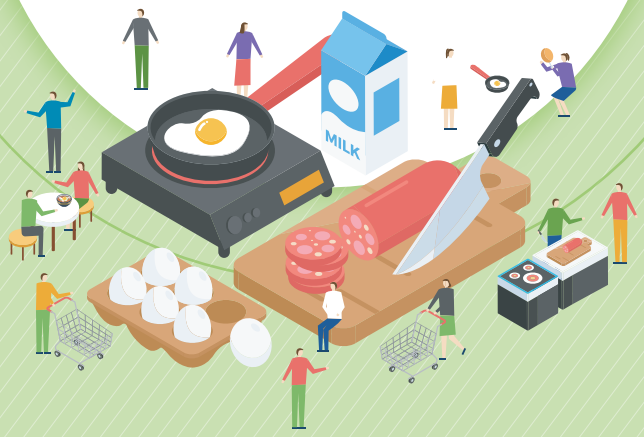
청년을 지원하는 공유

젊음아 모여라! 청년 공유공간 조성

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지역 청년의 문화활동, 창업, 디지털 창작을 위한 시설공유
‘청년살이발전소’·‘무중력지대 성북’·‘성북창작소’

- 청년의 사회활동, 일자리 창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한 청년 공유공간 조성
- 청년 활동에 필요한 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주민-청년 네트워킹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부 활동 영역 제공

취업장벽으로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의 현실

저성장경제가 지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청년의 사회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의 첫 취업까지 이르는 소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건강의 악화와 대인관계 단절 문제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성북구는 지역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한 '청년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활동,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다.

청년문제, 공유공간에 답이 있다

• 공유 기반의 청년·문화·창업 플랫폼 '청년살이발전소'

'청년살이발전소'는 창업이 취업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창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인 공유부엌을 개방하여 식문화 창업을 위한 준비 공간 및 음식을 매개로 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식업을 포함한 예술, 패션, 살롱 등 청년의 관심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초빙 강연을 실시해, 창업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정릉시장 상인 5명의 인터뷰 영상인 청년창업자 강연 '상인의 시간'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 바 있다.



청년살이발전소(외관)


청년살이발전소(공유부엌)


공유부엌 공간 대관

• 청년 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지대(zone)'는 지역의 공간과 자원의 연결을 뜻한다. 말 그대로 무중력지대는 연결의 거점공간으로써 청년의 시민력을 키우는 사회적 마당을 만들고자 한다. 이곳은 무지랑거실(공유공간), 아고식탁(공유부엌), 모임방(대관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년과 주민 모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의 청년과 청년단체 회원들은 함께 모여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멤버십 모임을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청년을 조명하고 기록하는 청년 시민조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중력지대 성북(외관)



무중력지대 성북(아고식탁-공유부엌)



도시프로젝트지원(놀이문화)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성북창작소' 운영

성북창작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 제작장비를 이용하여 실현해볼 수 있는 동네 창작공방이다. 예비창업자, 메이커, 학생, 주민 등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화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성북창작소에는 디지털 테스터기, 레이저 커팅기, 3D 스캐너, 3D 프린터, DSLR 카메라, 폴디오 360 미니스튜디오, VR콘텐츠 개발기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모든 장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 사이트에서도 대여신청이 가능하다.


성북창작소 내 공유물품


성북창작소 내 공유물품


메이커 장비 이용 및 교육 수강

공간에 청년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공간을 공유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속가능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코로나 이전 월 평균 684명이 이용했으며, 성북창작소에서 개설한 장비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해 275명, 장비이용자는 791명에 이른다. 공간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회관계를 맺고 이를 확장시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월간 무지랑 멤버십 모임

무중력지대 성북에서는 지역 공간 및 단체들과 관계망을 만드는 '무지랑 협력파트너 소개팅' 사업을 운영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3건, 2021년에는 16건의 협력파트너 소개팅을 추진하였고, 실제 사업 파트너로 4팀을 연계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청년살이발전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성북구 정릉시장 상인 인터뷰 영상컨텐츠 제작, 온라인 경제강연 등을 제공했으며, 청년창업자 강의 '상인의 시간'은 1,454회, 청년경제강연 '나는 왜 돈이 없을까?'는 1,046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유를 통한 청년·문화·창업 플랫폼으로써의 새로운 길



청년살이발전소 '상인의 시간' 제작

성북 청년공유공간은 그간 시설·물품을 기반으로 주민 간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뤄지는 거점공간이 되기 위한 기틀을 준비해왔다.

향후, 성북 청년공유공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창업 및 문화 트렌드에 맞춰 청년과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물품 등을 업데이트하여 공유해 나가는 한편, 공유공간을 매개로 지역 내에서 사업협력공동체를 더욱 확장시켜 청년이 일상생활과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청년·문화·창업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정장 대여 서비스 ‘드림옷장’

06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청년 취업준비생의 당당한 입사면접을 위한 드림옷장, 패션브랜드 영업장을 활용한 정장대여/코디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실시
- 2021년 서비스 대상을 6,600명으로, 서비스 제공처를 총 5개소로 확대
- 부산시 드림옷장 서비스 만족도 97.4%, 청년취업 디딤돌 역할 지속

취업준비생 부담 해소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약 1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대학학자금 상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각종 수험준비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길게는 1년이 넘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면접 전형에 응해야 하는데, 수입이 없거나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장을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부산시는 이렇게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드림옷장' 사업이다.

'드림옷장', 기업 영업점을 활용해 5개 서비스센터로 확대

부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자 했다. 2018년부터 시행한 '드림옷장' 사업은 취업준비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부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취업 준비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정장세트(자켓, 치마, 바지, 셔츠, 블라우스)는 기본이고, 구두, 벨트, 넥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소품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최근 청년 취업준비 비용을 덜어주는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와 2020년 서비스 이용실적(5,702명)을 감안하여, 2021년에는 6,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인원을 확대했다. 대여업체도 2020년 코칭(전 체인지레이디 부산점, 부전동 소재), 리앤테일러(부전동 소재) 등 2개소에서 파크랜드(부곡점, 광복점, 덕천점) 3개소를 추가, 총 5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청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부산시는 파크랜드와의 협의를 거쳐 정장 대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의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취업처의 특성과 이용자의 체형 및 이미지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는 '토탈 코디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드림옷장'

'드림옷장' 사업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7.4%가 대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직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청년일자리 지원 시책으로 평가됐다. 이용이 쉽고 의류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사이즈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여횟수와 기간도 적당하고 운영기관 직원들도 친절하여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드림옷장 서비스 매장을 늘려야 한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등의 개선의견도 있었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의견을 향후 서비스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취업난 속에서 '드림옷장'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구직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

III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유

07

경상남도 의령군

군민 우선 화합 의령



의령군 곳곳에서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포털 활용 극대화

- 2007년부터 운영해 오던 농기계임대사업과 공유누리 정책 연계
- 군내 3개 임대사업소 관리 농기계 정보 공유누리 사이트에 개방 등록
- 임대율·임대수익 증가로 농기계임대 사업 활성화, 서부사업소 개설 앞당겨

15년 차에 접어든 농기계 임대 사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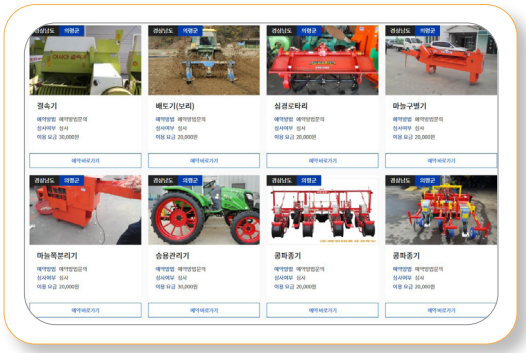
경상남도 중앙 내륙에 위치한 의령군은 총면적 482.91㎢, 1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전히 농업인구가 많은 곳이다. 의령읍을 중심으로 가례, 칠곡, 화정, 대의 등 서부권과 용덕, 정곡, 지정 등 동부권, 궁류, 유곡, 봉수, 부림, 낙서면 등 북부권역으로 나뉘는데 벼농사를 비롯한 경작, 임업, 농산물 가공업이 주된 지역산업이다.



의령군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농업기계임대서비스 정책을 시행, 총 3곳의 임대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원거리 지역 농민들의 방문 불편은 늘 문제였다.

중앙정부의 공유경제정책과 타 지자체의 공유서비스 시행 흐름에 발맞추어, 의령군은 군내 공유 가능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유누리에 개방했지만,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 서비스 이용률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임대농기계 정보 일제정비와 공유누리 활성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공공자원을 세심히 파악하고, 공유 가능한 자원들을 군민들이 더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운영관리체계 재정비, 등록자원에 대한 일제정비, 공유시설 개방 확대 및 다양화, 홍보 강화 등 공유누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용도에 맞게 분류해서 공유누리에 등록했으며, 기존 의령읍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72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동부·중부임대사업소로 확대·등록하여 관내 전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등록을 마쳤다.

임대사업소의 홈페이지 중심에서 벗어나, 공유자원의 확인과 관리, 서비스 신청 등이 훨씬 더 원활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통합포털(공유누리)'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군민 사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에 대한 공유누리 등록사항과 공유서비스를 알리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군 전역에 배포하고, 구청 누리집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농기계 임대율 상승에 이은 서부권 임대사업소 설치

그 결과, 농기계 임대율 상승과 함께 임대수익도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의령읍, 중부, 동부 등 3곳에 불과하던 임대사업소에 서부사업소를 추가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원거리를 오가야 했던 서부권역(가례, 칠곡, 화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리적 불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령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의 고가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에 큰 역할을 한다고 여겨, 임대농기계 확충과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로 농기계 임대서비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농기계 임대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 고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

08

전라북도 부안군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



원거리 도시지역 방문 불편 없이
지역 내에서 장난감 대여, 다양한 보육서비스 경험 제공

-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교육 지원서비스로 장난감 도서관 운영
- 코로나19 맞춤형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대여서비스 시행
- 장난감 대여 외에 다채로운 실내놀이, 공동육아 프로그램 도입

아이들 장난감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고 부모 및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으로 발달하며, 이러한 놀이의 매개체인 장난감은 아이들의 창의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부안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관내에 장난감 구입을 위한 장소가 한정적이고 마땅한 대여장소도 부족한데다가,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 해소방안에 주목했다. 또한, 영유아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기는 짧으나 가격이 비싸, 장난감 구매에 부담을 갖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장난감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군은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결정하였고, 운영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난감 대여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기능변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평일 주중에 직장생활로 인해 장난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정기 휴관일을 주말이 아닌 월요일로 변경했고, 연회비 2만 원을 내면 추가비용 부담 없이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연회비를 면제해 장난감 도서관 이용의 문턱을 더욱 낮췄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난감 도서관 빛나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주민들이 주말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한 것이 주민들의 호응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초,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난감 도서관을 휴관하게 되었고, 휴관 장기화에 따라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어 갔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휴관 종료 시까지 시행했다. 직원과 이용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주민은 필요한 장난감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고, 차에 탑승한 채 장난감을 전달받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반납된 장난감은 별도로 소독을 실시한 후, 다시 대여하거나 비치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한 회원수는 534명(2021. 12월 기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장난감 공유를 넘어 농촌형 보육정보센터로!

부안군은 장난감도서관 시설 내부에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보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전문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와 자녀의 공동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어 단순한 장난감 도서관으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농촌형 보육정보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도농복합도시 공유자원 지속 발굴 확대

09

충청남도 서산시

해뜨는 서산



도농복합도시의 생활환경과 농업 인프라에 맞는 공유자원 발굴과 공유서비스 홍보 확대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유자원 발굴 추진
- 농기계, 문화회관, 반려견놀이터, 공원 체육시설 등 공유누리 등록
- 도농복합도시의 생활환경과 농업 인프라에 맞는 공유자원 발굴과 공유서비스 홍보 확대

도농복합도시 서산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전체 면적의 35%가 농업지역으로, 육쪽마늘과 생강의 주산지로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간월항, 대산항 등의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 농·어업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서산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문화시설의 수요 증가로, 서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기계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 반려견놀이터 등의 공공자원을 발굴하여 공유누리에 등록했다.

많은 공유자원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용자가 많지 않아, 시는 공공자원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누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읍·면·동 곳곳에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강화에 주력했다.

도농복합도시 특화형 공유자원 발굴 및 공유누리 등록

서산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농업기술센터)와 분소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이다. 농번기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산시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기계 종류, 이용수칙, 요금 등 268건의 농기계 정보를 공유누리 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주차시설, 근린공원시설, 문화시설(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이용정보를 등록하여 시민에게 풍부한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1,749㎡ 규모로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는 2021년 6월 개관하였으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을 공유누리에 소개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혈압측정기', '돋보기', '휠체어',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라돈측정기',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각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했다.

서산시 공유자원 지속가능한 공유의 길을 열어가다

서산시는 공유경제 확산 흐름 속에서도 아직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 시설, 설비들을 발굴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발굴 및 이용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 문화시설의 유휴공간, 무선 인터넷(WiFi) 서비스 등을 공유누리에 등록해, 시민들의 다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활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시 관할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공공자원 공유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V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유

공유누리 대표 인기자원, 서산시민센터

10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활발한 시민참여 거점인 서산시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인프라 활용 증진과 공유테마 확산 추진

-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동의 거점에 집중
- 서산시민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추진
- 2020.5.15. 개관 이후 누적 이용인원 7,620명, 월 평균 400명의 시민이 시설 이용

공공자원 공유의 잠재성에서 출발하다

서산시 번화1로에 위치한 '서산시민센터'는 공유누리 서비스 개시('20.3.) 이후,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과 공유서비스 제공으로 '인기자원'에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 2020.5.15. 개관 이후 누적 이용인원 7,620명으로 월 평균 400여 명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1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활력공간 LAB〉과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뮤니티홀을 중심으로 창가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민원인용 컴퓨터를 배치했다. 동아리실과 회의실 공간도 넉넉하게 15명 내외의 인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

2층에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사무실은 사무 공간이 필요한 지역 활동가에게 딱 필요한 공간으로 누구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민센터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

서산시민센터와 공유누리 등록자원 대민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공유누리 이용방법', 하반기에 '모바일 공유누리 어플 사용' 홍보자료(포스터,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다. 서산시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여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읍·면·동 민원대에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서산시 호수공원 전광판, 부동산열람정보시스템 등 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 상시 조사(출입구 등 부착)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다. 서산시청 내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15개 읍·면·동 민원창구 및 서산시민센터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다.

서산시민센터로 놀러오세요!



센터 내 공유북카페 활성화 캠페인('21.6.)을 통해 기증받은 책은 1,500여 권에 달하며, 독서예능 프로그램 '북유럽 with 캐리어'에서 공유북카페를 소개하면서 인기있는 장소가 됐다.

서산시민센터는 '시민이 채우다, 시민이 만들다, 시민이 누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물건, 생각, 재능' 등을 공유하는 단체 '시민공유회원'을 모집했으며, 2021년에는 2기 회원 23명이 활동했다.

또한 센터 내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공유사무실, 공유북카페 등 이용자들의 복합공유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공유사무실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개인·단체에게 일정기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현재 2개의 공익활동단체에 대여 중이다.

센터는 단순한 공간 공유뿐만 아니라, 문화,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환경생태운동, 사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공유회원이 서로의 분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원데이 클래스(1일 체험활동), 공유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공유누리에 등록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

11

부산광역시 북구



소유보다 공유다!

구민과 함께 누리는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 추진

- 공유경제 확산 흐름에 맞춰 공공자원 개방 정책 중점
- 공공자원 확대를 위해 전담공무원 지정, 일제정비로 전년대비 등록자원 161% 증가
- '사람책', 미술작품대여, 안심CAR, 다울하우스 등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추진

공유경제의 시대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 기반의 개인 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스며든 공유 실천!

부산 북구는 일상생활 속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공유에 대한 정보와 개방자원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사업을 생각하자

북구는 체계적인 공공자원 개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이런 것도 공유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공공자원을 발굴·확대하였고, 주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일상에서 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유사업 발굴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활성화를 추진했다.

먼저 공공자원 확대를 위해 추진동력을 정비했다. 22개 부서, 총 25명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유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161% 증가한 자원을 등록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공유누리시스템에 등록·개방하고 있다.

또한, 구민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스티커 제작, 다양한 채널의 SNS홍보 등을 통해 공유누리 서비스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부산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28만 구민의 북구는 사람이 자산인 곳으로 교육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교육문화도시를 향한 공유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개편 시, 북구 통합예약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 교육강좌, 공연전시 및 각종 체험활동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웹사이트 289개를 하나의 플랫폼 웹사이트로 일괄 통합하였으며, 총 5,965건의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한편, 앞으로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사이트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경험을 책처럼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사업에 이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미술작품 대여사업(Art with Me)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가정에 미술작품 대여활동도 펼쳤다.



사람책 사업

구청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작은도서관 도서공유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안심CAR 운영의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 지역 내 공간을 상시 소통공간으로 운영하는 복합공유라운지 '담다'를 설치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힘이 되는 공유사업으로는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무인택배함 운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방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복지공간 공유사업 '다울하우스'도 적극 운영 중이다.



미술작품 대여사업

구민 안전복지를 위한 공유사업으로는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압기 등 6종 92점을 대여물품으로 지정해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무료이용을 도왔으며, 소규모 주민행사 및 단체관광 진행 시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무료대여 서비스도 진행했다. 또한 부산시 최초로 라돈측정기 대여, 하절기 양·우산 대여사업도 추진했다.



다올하우스



무인택배함

전 구민이 공공자원을 공유하는 그날을 위해

부산 북구는 '함께 나누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유·대여사업을 공유누리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공유자원의 정비와 현행화를 통한 주기적인 관리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들이 인터넷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 가능한 물품과 서비스를 검색·이용하고, 일상 속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나대지의 재탄생, '나눔주차장' 공유서비스

12

경상남도 의령군

군민 우선
화합 의령



군-토지소유주 공유협약 체결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 활용 공유주차장으로 재탄생시키다

- 오랫동안 텅 빈 나대지로 인해 생활 불편, 미관 문제 발생
-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 현황 파악에 이어 토지소유주와 나대지 공유협약 체결
- 나대지의 나눔주차장 변모로 지역 환경개선, 주차 불편 및 분쟁 해소

아무렇게나 방치된 나대지, 이를 어떡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의령군 또한 시내·외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단적치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마을의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통행 불편과 혐오감을 주고 있었으며 불법 주차까지 성행하는 등 관내 나대지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의령군은 우선, 군 전 지역의 나대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각 시가지 주민들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받아 나대지 현황도를 작성했다.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나대지의 방치 이유를 파악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논의를 위한 중점사항도 정리해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합의점을 찾았다.

볼썽사납게 텅 빈 나대지에 '공유'를 채우다

군은 토지소유주를 일일이 면담하여 시가지에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의령읍과 토지소유주 간 일정 기간(1년 이상) 동안 공유협약을 체결하여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군은 시가지의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의령읍 서동리 나대지(243㎡)에 '의령 제1호 나눔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9월에는 부림면 현동마을의 나대지에 적치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10월에는 대문동마을 나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마을환경을 훼손하고 무단적치물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던 여러 나대지를 인근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군에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은 인근 도로변의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눔주차장을 시작으로 공유복지 영역을 키우다

나대지 나눔주차장 사업은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공유서비스로 변모케 함으로써, 지역의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의령군은 오는 2022년에도 나대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대상지를 파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마을환경 개선과 주차편의 제공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 제1호 나눔주차장
(의령읍 서동리 공용주차장 전경)

야간 귀가택시비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1인당 한 달 최대 30만원 씩을 지원하는 '야간 귀가택시비 지원'을 위해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군은 야간 귀가택시비 지원 정책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택시비 지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모든 주민에게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나눠쓰면 아끼고 커지는’ 지역물품공유센터 조성사업

13

광주광역시 남구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Gwangju Namgu



주민주도형 물품 대여시스템에서 마을공유학교로 발전하는 지역 공유공동체 광주광역시 남구

- 생활밀착형 주민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물품공유사업 구상
- 주민 중심의 대여시스템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남구 마을공유학교 운영으로 주민협동 공유문화 확산 정책 지속

1년에 한두 번 쓰는 물건, 꼭 구입해야하나?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경쟁과 독점을 넘어, 공유와 협동으로'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소유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물품공유센터를 통한 공유물품 대여를 구상하게 됐다.

그러나, 조그마한 공유센터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구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물품공유센터인 만큼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야 했고, 한번 결정하면 옮기기가 어려우므로 장소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구청 민원실 옆 주차공간의 일정부분을 활용하여 조성하기로 했다.

장소 결정 후에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고민이 컸다. 협소한 내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의 수요조사와 함께 센터만의 고유한 콘셉트 구상이 필요했다.

주민 의견, 타 지자체 물품공유센터 사례에서 답을 찾다

먼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와 다른 지역 물품공유센터의 물품대여 현황을 조사해서 주요 대여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의 사전의견조사를 통해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지만 1년에 한두 번만 사용하는 물품을 위주로 품목을 선정했다.



공유센터 조성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힘들었다. 결제 및 대여시스템 구성방법, 운영인력 배치방안, 대여물품 사후관리 등도 준비과정에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였다.

신문과 웹페이지의 자료 검색을 통해 은평구 등 서울지역 물품공유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 구성 방안을 배우기 위해 자문을 구했고, 광주광역시 물품공유센터를 통해서도 대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결제편의를 위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코드를 활용한 대여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물품공유센터 조성을 위해 미리 관련 조례를 정비해 놓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다



처음에는 소규모 공간과 적은 보유물품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센터 조성 이후, 구보 소식지와 각종 자생단체 회의자료, 특히 남구청 공식 블로그, 카카오톡 남구이야기 채널,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다.

새로운 물품이 준비될 때마다 제품소개와 사용매뉴얼, 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간혹, 주민들이 제품의 사용법 미숙지로 파손되는 제품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제조사의 A/S 처리 등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 실시한 물품공유센터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만족한다'로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공유·개방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다.

공유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다

우리는 여전히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 예로,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각 부서마다 구매할 게 아니라, 물품공유센터를 통해 미리 구매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공유문화 확산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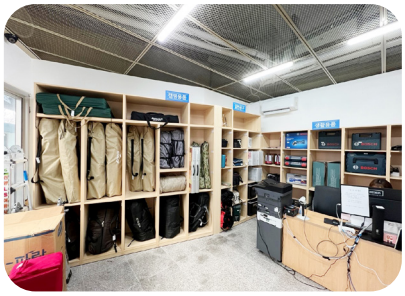
2022년부터는 마을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확장시켜 생활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공유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조성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0. 11. ~ 2021. 2.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남구청 별관 주차장 1층)
- 규　　모 : 면적 22㎡, 지상1층
- 보유수량 : 61종 138개
- 사 업 비 : 80,000천원



물품공유센터 전경


물품공유센터 내부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

V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시도의 공유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14

경기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공유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도내 공유시설 확대 적극 추진

- '21년 1월, 온라인에서 다양한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예약, 결제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 웹과 모바일 버전으로 도민, 시설운영자 각각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공유시설 통합 검색·예약·결제 가능, 주소기반 위치검색 기능, 360°파노라마 영상 제공, 공유시설 등록·수정 관리, 온라인 예약·결제·승인 및 관리기능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기도는 2019년 6월부터 1,300만 도민을 위한 공공자원 공유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도민에게 개방·공유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했다.

이뿐 아니라, 도민들의 공공시설 공유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공유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 2019년 하반기, 4개월에 걸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1년여 동안의 개발·구축 및 시범운영 후, 2021년 6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21년 3월, 도는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산관리과 시설개방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360°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했으며, 공유지도 안의 '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가 공공시설을 빠르고 편리하게 둘러본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360°VR 파노라마 영상

또한, 시설 관리자가 시설위치의 위·경도를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넓은 면적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세부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실제 방문 시 더욱 쉽게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소기반 위치 표시



위도/경도 수정 기능

공유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시행

도는 이와 같은 기본서비스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공유대상의 다양화, 예약시스템의 안정화, 참여기관(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운영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광범위한 서비스 홍보방안을 담은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공유시설 발굴조사를 정례화하고, 등록시설의 확대, 서비스 유형분류 체계화 작업으로 시스템을 개선(시군 확산 → 메인화면·기능 개편 → 시스템 고도화)하여, 매년 100여 개의 신규 등록 시설에 360°VR 파노라마 영상서비스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경기공유서비스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참여기관별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시설관리 우수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또한, 도는 '21년에 도내 시·군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1년 12월 말 기준, 20개 공공기관, 31개 시·군의 1,682개의 시설을 등록·이용하고 있다.



경기XR센터 회의실



사이&오픈주방(광명시)

경기도의 풍부한 공간시설 자원의 공유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는 참여기관의 개방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유자원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에 밀접한 테마서비스(캠핑장, 웨딩홀, 면접정장 대여, 텃밭, 유휴 공유재산 안내 등)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2년에는 경기공유서비스 내 기관별 미니페이지를 구축하여, 별도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각 시·군별 등록시설과 행사프로그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유지보수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도민의 예약신청에 즉시 상담·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더불어, 참여기관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시설운영자의 업무부담을 줄여갈 계획이다.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5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주거지역 주차공유와 지역사회 각종 시설의 부설주차장 공유로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거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사항 가중
- 지역사회 주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 차원의 공유 협약 체결
-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공유 확대 및 야간시간에 부설주차장 주민 제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다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 문화 활성화에 나섰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려면, 주차면 당 1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적절한 부지를 찾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주택가 주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지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해 왔으며, 현재 290곳의 2만 904면이 개방 중이다.

부산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시설의 설치를 위해 최고 1천만 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전일 개방이 가능해야 하며,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 기준에 따르면, 최소 5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해야 하며, 개방을 원하는 건물주가 해당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연번	구·군명	협약일자	협약기업	운영시기	추진장소	공유실적 (21년도)	비고
1	연제구	'19. 8.14. '21. 2.17.	모두컴퍼니 (모두의주차장) 한컴모빌리티 (파킹프렌즈)	'19.12월~ '21. 4월~	전 동(2,161면)	3,392건	IOT 활용(68면)
2	금정구	'19. 9. 3.	모두컴퍼니 (모두의주차장)	'19.11월~	전 동(1,111면)	194건	-
3	동구	'19. 9. 6.	〃	'19.11월~	전 동(1,076면)	239건	-
4	남구	'19. 9.10.	〃	'19.11월~	전 동(1540면)	126건	-
5	부산진구	'19.10.16.	한컴모빌리티 (파킹프렌즈)	'20. 1월~	5개동(165면)	152건	IOT 활용 (43면) 노외 122면 차단기 연동
6	사하구	'20. 1.10.	모두컴퍼니 (모두의주차장)	'20. 1월~	전 동(1,691면)	599건	(구평동 제외- 주거지전용주차장 없음)
7	동래구	'20. 6.25.	〃	'20. 8월~	4개동(89면)	233건	IOT 활용(21면)
8	수영구	'20. 6.30.	〃	'20. 8월~	전 동(779면)	1,649건	-
9	해운대구	'20. 9.17.	〃	'20.10월~	1개동(42면)	1,755건	IOT 활용(42면)
10	중구	'20. 7.30.	한컴모빌리티 (파킹프렌즈)	'21. 1월~	4개동(23면)	564건	IOT 활용(23면)

*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구 분	계		공공기관		교회(성당)		학 교		기 타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303	22,303	178	10,751	63	1,266	29	890	33	9,396
'08~'18	248	20,098	161	9,383	39	900	23	578	25	9,237
'19년	28	968	9	491	9	127	6	312	4	38
'20년	11	392	3	275	5	96	0	0	3	21
'21년	16	845	5	602	10	143	0	0	1	100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개방, 공유서비스 확대

주차공유문화는 부족한 주차 공간과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거점 대규모 건축물, 주택가 인근 교회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을 다양화할 것이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집합시설 및 교통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발굴 및 지원

16

대구광역시

Colorful DAEGU



‘공유대구’를 위한 스마트한 혁신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활성화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 공유를 통해 해결
- 공공 및 민간의 유휴공간을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
-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는 사업 지원

소통과 공감을 이어가는 공유공동체 문화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신기술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 더 편리해진 인터넷 환경에 소셜네트워크(SNS)의 확장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면대면 소통량보다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소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소통의 속도와 편리성은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소통의 정확성과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에 주목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나눔과 공감의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공유촉진조례 제정과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그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2월 27일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공유문화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세대 간의 갈등,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대인관계의 기피로 인한 마을 공동체 기능의 약화, 생활·문화·교육 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및 공공의 전문가들로부터 공유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유휴 공유자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공유’를 대구의 행정목표와 시민공감 브랜드로!



대구시는 2018년부터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상시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지역의 공유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네트워크 촉진 사업’은 물품, 정보, 재능 등을 활용하여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과 설비의 대여는 물론, 재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면대면 만남과 어울림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공동체문화 증진 모델이다. 사업 추진 결과,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소통과 만남의 장이 늘어나고, 주민공동체 내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현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하는 대안공동체 형성의 장이 되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공유공간 90곳에 ‘공유대구’ 현판을 제작·게시하여, ‘공유대구’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공유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최선의 행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유자원의 발굴·지원 확대로 공유공동체 발전 기대

대구시는 공유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군과 협업체계를 더욱 더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사업공모 시작 단계부터 구·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민·관 협업사업이 체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민간영역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공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유에너지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유가치로 연결되는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발 행 일 2022년 4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주 소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5호

연 락 처 (TEL) 044-205-2777 (FAX) 044-204-8934



공공자원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